



STA(Software Testing Alliance)는 사명 그대로 소프트웨어(SW) 테스트 전문기업이다. 이 회사는 SW 품질향상을 위한 테스트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'테스팅 관리 자동화 지원 도구 보급', '테스트 컨설팅', '테스팅 교육 서비스' 등 SW테스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.

'테스트 관리 자동화 툴' 국내 최초 개발

SW테스팅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상용화 하기 전 테스트를 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. 간단한 버그 찾기부터 복잡한 프로세스 정립까지 프로그램 작동이 면밀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한다.

현재 국내의 SW테스팅 기업은 10여 개 정도이며 SW

기업에서부터 세트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. 이 중에서 STA(대표 권원일)는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최고의 실력과 기술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. 특히 국내의 테스트 전문가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한다.

권원일 대표는 한

(ETRI)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연구원 출신. 연구원에서 벤처 CEO로의 변신 계기는 "창업 당시 국내에서 미개척분야였던 SW테스팅 사업이 장차 큰 성공을 거둘것이라는 판단때문이었다"고.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. STA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SW테스팅을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. 대기업까지 SW테스팅 업무를 아웃소싱할 정도로 테스트 아웃소싱은 큰 인기가. 권 대표는 "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개발자와 테스터를 비슷한 인력으로 구성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제품의 완성도와 경쟁력을 결정한다"

고 SW테스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글로벌 테스트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터

STA는 작년 10월에 개발한 SW테스트 관리를 자동화하는 도구인 'TPMS(Test Process Management System)'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 이 제품은 외산에 비해 판매가격이 60~80% 가량 저렴한데다 최신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. 또한 테스트 계획부터 리스크 기반 테스트 전략 수립, 테스트 설계, 결함관리 및 추적, 테스트 리포팅 등 테스트와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한다.

권원일 대표는 "그동안 다양한 SW테스팅 컨설팅과 교육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제품에 반영해 기업체의 SW 테스트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"며 "중소기업은 물론, 대기업의 일선 사업 부서에서 'TPMS'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"이라고 자신한다.

이어서 "테스트 관리 자동화 지원 도구 보급이 일경궤도에 오르면 다국어를 지원하는 제품군을 출시하여 전 세계 시장으로 뚫어줄 것"이라 원대한 사업 계획을 밝혔다.

STA는 이미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 테스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.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개 국가의 테스트 리딩 전문가들과 해마다 수차례씩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 특히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테스트 산업계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해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.

권 대표는 2008년을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년으로 정하고 외부 투자 유치로 회사를 키우며 매출 극대화에 힘을 계획이다. 이와 함께 테스트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을 보다 전문화시켜 "STA가 테스트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이 분야를 리드하는 회사로 발전하고 싶다"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.



STA 권원일 대표(맨 우측)는 테스트 관리를 자동화하는 도구인 'TPMS'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다국어를 지원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.